

韓國의 環境政策과 環境教育

金 奎 應

(環境處 公報官)

〈차 례〉

- | | |
|---------------------|----------------------|
| 1. 서론 | 3. 환경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 2. 환경 정책 이행 과정 및 방향 | 4. 결론 |

1. 序論

흔히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구 증가(population increasing),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자원 고갈(resources shortage) 등 3대 과제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에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다.

즉 이들 3자중 인구의 증가는 가장 근원적인 동인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를 파생시켜 간접적으로 환경 오염과 자원 감소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다시 인구 증가, 산업화, 도시화 및 환경의 오염은 직·간접으로 자원을 감소시켜 하나밖에 없는 지구촌에 환경적 위기(environmental crisis)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물질적 풍요만이 모든 가치에서 제일인 것처럼, 서로의 경쟁을 통하여 대량 생산과 과소비 위주의 산업화로 치닫고 있는 결과 오늘날 생존터전 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목표로 산업화에 주력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사회전반에 환경 오염이 점차 現在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마다 이제는 더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지경에서 환경 보전에 대해 전국가적인 차원의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써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 모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편리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몰들어 환경 오염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태도와 나 하나정도야 하는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도덕성의 결핍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환경 교육은 자연, 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가치관을 기르는 교육적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각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각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에 관련된 기본적인 올바른 도덕성과 가치관 그리고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에 환경 교육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가는 과정과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살펴본 이후에 환경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90년대에 환경 교육이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環境政策 履行 過程 및 方向

1)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18세기 산업 혁명 이래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은 금세기에 들어와 인류 문명을 꽃피웠지만,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는 앞에서 보았듯 현재 인류의 최대의 현안 과제가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류의 생활 터전 자체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등은 환경 오염 요인으로 반성의 대상이 되고 환경 보전이란 새로운 사조가 1960년대 초반부터 물결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전후 최대의 경제적 호황을 맞아 소위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시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전후의 모든 신생국들이 속명적인 빈곤과 식민지였던 과거를 탈피하고 국가 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착수하던 1960년대 초반,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던 첫해인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여사는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통해 D. D. T와 여타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 물질이 야생 동식물을 손상시켜 종(species)의 멸종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분명 우리네 인류사에 있어 새로운 획기적인 사조를 태동시킨 전기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 후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로 전세계는 또 한 번 경악케 된다. 소위 생태학적 폭탄(ecological bomb)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보고서로 말미암아 비록 그 역사는 짧지만 환경 문제가 삼시간에 전인류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그 심각성이 확인되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UN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하고 7개항의 선언(proclamation)과 26개항의 원칙(principles) 및 109개항의 행동 강령(action programs)을 담은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Human Environment)을 채택·선포하고, 이러한 원칙을 각국 정부에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UN은 그해(1972)말 UN내에 환경 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를 발족시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들도 그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내에 환경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계법령을 갖추어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무렵 '75년에 보건사회부 내에 국 단위의 공해 관리관을 두고 관계 법령의 제정과 기구의 개편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과 해양 오염 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79년말의 정부 조직법 개정 에 따라, 1980년 1월에는 환경 문제를 전담한 중앙 행정기구로 환경청을 발족시켰고, 그후 환경 오염의 확산과 다양화에 따른 환경 정책의 강화를 위해 1990년 '환경처'로 승격시키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추세는 1970년대의 전기간을 통하여 구미 선진 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도처에 국내 또는 국제적인 수많은 환경 보호 단체를 형성케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서독의 녹색당이라 할 수 있다. 동 단체의 등장과 활동은 전서구사회의 정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서구사회내 녹색당의 발전을 가져 왔다. 이러한 경향으로 최근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태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저공해 내지 무공해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적 산업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양상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 환경 정책 결정 과정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기에 처한 환경'이라는 견해로부터 궁극적으로 결과하는 것으로서, 오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증가된 정부 간여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환경에 대한 이러한 공적 인식의 전환은 자원의 양에 대해서만 있고, 이러한 인식 전환은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의 민감한 반응을 또한 수반하게 됨으로 환경에 관한 각종 민원 및 진정 등의 형태로 욕구가 분출하게 된다. 현재의 환경 오염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환경 정책이 추구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정책 결정자들간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방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우선순위의 비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의견의 충돌을 통하여 환경의 질에 대한 환경 정책이 형성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정책의 결정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과 유사한 한편 또한 몇가지 중요한 특색에 있어서 구별된다. 환경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모든 정부의 활동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원을 다양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화의 수준에 있어서는 환경 정책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발전과 동일한 양상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환경 정책은 그 영향면에 있어서 광범위하다. 그런데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특성은 기술적인 고려와 정치적 요구 사항간의 상호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일 훌륭한 기술적인 제안이라도 정치적인 지원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행정 당국에 의하여 무시되거나 최소한 부차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이 공직자에 의하여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기술적인 문제와 그 제약에 대하여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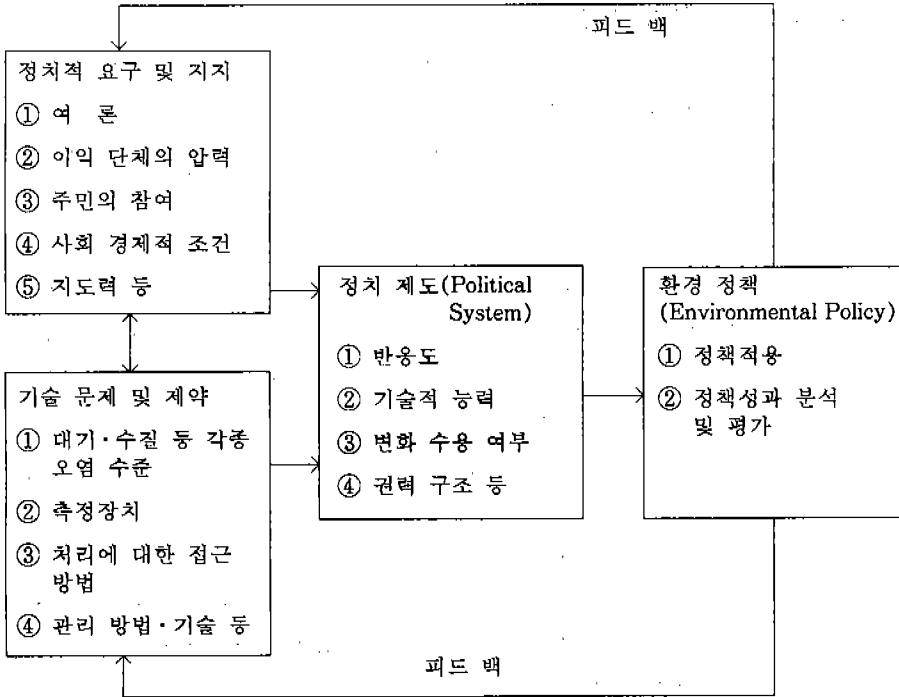
기술 및 정치적 영역의 상보작용에 의한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다음 그

림과 같다.

제1단계 : 분제점 (Input)

2단계 : 전환

3단계 : 정책 (Output)



[그림 1]

환경 정책 결정 과정

이러한 환경 정책의 결정은 한편으로는 환경 및 인간의 가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① 어떻게 환경 및 인간의 가치가 효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 ② 기술과 환경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과학적 판단과 가치 판단의 관계는 어떠한가?
- ③ 어떻게 선출된 대표자, 정부 행정 공무원, 시민 및 기술 전문가들의 투입이 환경 정책의 결정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3) 우리 나라 환경 정책의 전개 과정

(1) '90년대 이전의 환경 정책

우리 나라의 환경 정책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난 60년대에는 개발의 초기 단계로, 절대 빈곤과 국내 자본의 형성이 보잘 것 없는 여건속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외자 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이 불가피하였기에,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물론 '63년 11월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외자 도입의 필요적 절차로 제정되었기에 시행 규칙이 '67년 5월에야 제정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도 '67년 2월에 보건사회부에 환경 위생과를 둠으로서 그 운용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렀다고 하겠다.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대규모로 공단을 조성하는 등 각종 개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급격한 도시화 경향으로 공기와 강물이 오염되고 주변 환경이 더럽혀지는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때까지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상황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공해방지 차원에서 산업체 위주의 배출 규제에 중점을 둔 사후적 오염 방지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77년에 공해 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 보전법'을 제정함으로써 종래까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환경 정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기준의 설정,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 특별 대책 지역의 지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 방지 비용 부담 등 환경 행정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는 데 의미가 깊으나, 법의 시행이 소극적,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는 없었다. 그 외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 오염 방지법' 제정('77년), 폐비닐 수집 처리를 위한 '합성 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제정('79년)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 위주에서 국민 생활의 질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헌법에 생활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천명하고, 환경청을 신설하는 등 비로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함으로써 환경 정책도 종래의 오염의 사후 처리에서 사전 관리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86년부터는 대폭적인 환경관계 법령의 정비 보완과 영향권별 환경 관리를 위한 6개 지방 환경 지청 및 환경 오염 방지 사업단 설치 등 그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원유의 탈황시설 설치 등 원인 처방에 의한 정책 개발, 지속적인 환경 기초 시설의 확충 등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

련하였다. 그러나 근원적인 오염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하겠다(표 1. 환경처 예산 규모 참조).

〈표 1〉 환경처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연도별 | 환경처예산(A) | 정부예산액(B) | 비율(%) (A/B) |
|------|----------|----------|-------------|
| 1980 | 120.5 | 64,785 | 0.186 |
| 1981 | 152.2 | 80,400 | 0.189 |
| 1982 | 207.7 | 95,955 | 0.216 |
| 1983 | 206.9 | 104,167 | 0.199 |
| 1984 | 343.1 | 103,867 | 0.330 |
| 1985 | 420.5 | 125,324 | 0.336 |
| 1986 | 433.0 | 138,005 | 0.310 |
| 1987 | 670.8 | 160,596 | 0.420 |
| 1988 | 772.9 | 184,291 | 0.420 |
| 1989 | 642 | 192,284 | 0.335 |

(2) '90년대 환경 정책 방향

① '90년대 환경 행정 여건

전세계는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동구권 변화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 '89년 타임지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올해('89년)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듯이 지구 환경의 위기가 전 인류의 공동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72년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 이후 환경 문제에 관한 경종을 계속 울렸고, 여러 측면에서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은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으며, 새로이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기온 상승과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르바췌프는 유엔 연설에서 미·소가 공동으로 2차대전 이후 발견한 것은 바로 지구 환경의 오염이고, '군비 축소와 지구 환경 위협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국제 경제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설파하였는가 하면, 부시 미대통령은 '90년에 세계 환경 정상 회의를 제안하였고, 일본은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표방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의 기여를 다짐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영국도 오존층 파괴 물질인 CFC를 조속히 사용·금지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는가 하면, 작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G-7회의에서도 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였고, 각국 명사의 모임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 없이는 대화의 대상을 갖지 못할 형편이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어떠한가?, 지난해 환경의 날에는 대통령이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담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물 문제 해결을 6공화국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열기만큼이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고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환경 실상은 적잖게 악화된 상태에 있다.

② '90년대 환경 정책 방향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환경 여건은 오염 원인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으며, 오염 범위도 더욱 광역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토라는 좁은 환경에서 산업 구조는 더욱 고도화되고 토지 이용은 더욱 증대될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이나 소비 생활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구조는 적어도 매년 7-8%의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매년 발생하는 노동력 조차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 보전은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제·무역·에너지·농업 등의 모든 정책이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철학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GNP 맹신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양적 경제 성장보다는 전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개발 부문에 더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90년도의 첫해인 '90년을 환경 보전 원년으로 하여 환경 정책의 새로운 장을 기준 년도로 설정하고 강력한 의지로써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저공해 내지 무공해 기술의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겠다.

물론 저공해 내지 무공해 기술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시책의 방향은 그래야만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과 연구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환경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오염 감시 활동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국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오염을 스스로 제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 생활에서 소비 절약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오염 감시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환경의 파수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환경은 쾌적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삼위일체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교육 정책에 의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의 실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4) 환경 교육 정책 방향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각과 태도는 성장 관리에 기본을 두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며, 정책적 배려가 잘 되어야만 환경 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환경 교육 정책은 무엇보다도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거시적·체계적 접근 위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 접근을 병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에서 계층별 교과 과정의 결정이나, 교실에서의 교육 방법의 개선, 교육 자료의 보강 및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그리고 학교외에서는 여론 조사, 홍보 활동, 직장 교육, 모임 등을 통한 참여 방법의 이용은 교육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환경 교육 정책은 환경 행정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정책의 문제들을 포괄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의 영향과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는 인구, 자원, 기술, 공간에 대한 생태론적 분류와 확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구체적 정책과 그 영향들을 인간과 생태계의 상호 작용, 가치 전제, 정책 방향 등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조작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위의 정책 접근에 따라

환경 교육이 교육 정책과의 접근을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환경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슈마허(E. F. Schumacher)의 '교육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원'이라는 말처럼, 결국 환경 정책도 위대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류의 환경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겠다.

- ① 환경 교육의 정책과 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환경 정책과 계획에 입각해야 한다.
- ② 환경 교육은 보전의 균형점을 찾아 환경 계획과 환경 관리의 측면에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환경 교육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 ④ 환경 교육은 피교육자의 자각과 관심 및 지능을 함양하는 데 있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 ⑤ 환경 교육은 인간 기본 수요의 충족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 ⑥ 환경 교육은 지역 사회 개발에 우선하고, 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및 자연에 적응력을 키우면서 자연의 보호와 자원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⑦ 환경 교육은 학술적이고 자연 과학 인변도에서 사회 과학과 인문 과학 및 예술의 내용도 안배가 있어야 한다.
- ⑧ 사회 환경 교육은 각종 매체, 모임, 공공기관과 학회, 자연 학습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⑨ 환경 교육을 위한 학교 수준별 그리고 교육자별 전문화 등을 위한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環境教育의 現況 및 發展 方向

1) 환경 교육 추진 현황

우리 나라에서 환경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 이후로서, 시대적으로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제도적·법률적인 조치가 강화되었다.

(1) 학교 환경 교육

① 초·중·고등학교 환경 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의 환경 교육

우리 나라의 교육 과정은 그동안 5차례에 개정·고시되었는데, 환경 교육 내용이 교과에 처음으로 수록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이다. 환경처에서는 제4차 교육 과정에 환경 교육을 확대 반영코자 '82년 '효과적 환경 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개발하고, '83년에는 '환경 교육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문교부에 체계적인 환경 교육 실시를 위한 정책 건의를 한 바 있다.

환경 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87)에서 교육 과정상 8대 중점 사항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4차 교육과정에 비해 대폭 보강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환경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과에 분산, 지도하게 되었고, 내용 영역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연 환경, 인공 환경, 재해 및 공해와 자연 보존에 관한 것이며, 교과별로는 사회과(특히 지리 영역)와 자연과(특히 생물 영역)를 중심으로 하여 도덕(국민윤리), 실업, 국어 등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각 교과의 환경에 관한 단원 수와 내용도 다양화,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환경처는 그간 환경 관련 내용이 알차고 체계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교과 개편 원고 집필자들에게 '환경 보전', '환경 보전 시범 학교 운영 사례집',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하여 왔으며, 1987년에는 '학교 환경 교육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1988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환경 교육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 학교 환경 보전 시범 활동 추진

일선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시범적·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릴적부터 확고한 환경 보전 의식을 심어주고, 체계적인 환경 교육의 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의 개발·보급으로 학교 환경 교육의 확산을 기하고자 환경처에서는 학교 환경 보전 시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다. 즉, 지난 '85년부터 2년을 주기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를 환경 보전 시범 학교로 지정·운영해오고 있으며, 또한 '85-'88년간 시범 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된 경험이 있는 학교(16개교)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환경 보전 시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시범 학교로 지정하여, 지방 환경청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한편, 1988년도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중학교 1개교, 국민학교 1개교씩 총 504개교를 환경 보전 중점 지도 학교로 지정하고, 환경 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

사회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보전 시범 학교 운영의 결과는 학교 자체 평가회의 개최, 환경처에서의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환경 보전 시범 학교 운영 사례집 발간·보급을 통하여 전국의 학교 및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 학교 환경 교육 자료 개발·보급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환경 교육자료 보급을 위하여 환경처에서는 각종 학교 환경 교육 자료들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매년 시범 학교 운영 결과를 모범 사례별, 학교별로 다양하게 편집하여 ‘환경 보전 시범 학교 운영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중점 지도 학교등에 집중 배포·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1988년에 한국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국민학교용 ‘학교 환경 교육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전국 국민학교에 이미 배포한 바 있으며, 1989년에 개발한 중학교용도 전국 중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1990년에는 고등학교용을 개발·보급할 계획임).

이외에도 1988년에 사회 부류별(농·어민, 공직자 및 직장인용, 초·중·고교용) 환경 교육 자료를, 1989년에는 국민 환경 보호 수칙인 ‘환경 보전의 길’을 각급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에 보급하였고, 환경 교육용 VTR 프로그램 등 시청각 자료와 소형 만화등 각종 교육 자료도 제작·보급하여 오고 있다.

② 고등 교육 기관의 환경 교육 강화

환경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각 대학과 대학원의 환경 관련 학과를 들 수 있다. 환경 오염의 심화와 중요성으로 인해 매년 환경 관련 학과가 많이 신설되고 있다. '88년 8월 현재 매년 배출되는 환경 전문 인력 현황을 보면 대학원 과정은 15개 대학원의 27개 학과에 정원이 1,000여명이고, 대학(교)과정은 31개 대학(교)의 35개 학과에 정원이 1,700여명이며, 전문 대학 과정은 25개 대학의 37개 학과에 정원이 3,300여명으로 총 99개 학과에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오염의 다양화로 인해 환경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의 새로운 전문 지식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일반 교양 과정에서도 환경 강좌가 개설되어서 대학내에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2) 환경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교육

① 국립 환경 연구원 교육 훈련

환경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 1967년도에 보건사회부 소속 기관인 국립 보건원에 '공해과'가 신설되면서, 공해 검사 보수반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실시한데서 비롯되었다. 1978년도에 국립 환경 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 보건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해오던 환경 교육 훈련 업무를 인계받았고, 본격적인 환경 교육 훈련은 1980년도 환경청 발족과 함께 환경 연구소의 직제 개편으로 환경 교육 훈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인 '교학과'가 신설되면서부터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의 고도화로 환경 오염이 급격히 심화됨으로써, 각급 기관에서 환경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민간인(환경요원)에게 환경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보급과, 각종 환경 시책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이해시키는 실무 교육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따라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또한 교육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환경 교육 추진 실적

| 연도 구분 | 계 | '80-'84 | '85 | '86 | '87 | '88 | '89 |
|----------|--------|---------|-------|-------|-------|-------|-------|
| 계 | 11,089 | 3,025 | 1,144 | 1,202 | 1,615 | 1,908 | 2,195 |
| 공무원 | 7,811 | 2,322 | 813 | 932 | 1,367 | 1,081 | 1,296 |
| 민간인 | 3,278 | 703 | 331 | 270 | 248 | 827 | 899 |

② 환경 보전 협회 교육 훈련

전국의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 시설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배출 시설 관리인에 게 환경 보전 사명감과 실무기술을 익히게 하여 이들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 보전의 일익을 담당케하고자 전국의 1-5종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종사하는 배출 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환경 보전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훈련 과정은 배출 시설 업종과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개 과정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배출 시설 관리인 교육 훈련 실적

(단위 : 명)

| 연도별 과정별 | 계 | '83-'86 | '87 | '88 | '89 |
|------------|--------|---------|--------|--------|--------|
| 계 | 73,663 | 31,137 | 13,033 | 14,287 | 15,206 |
| 전문관리자 과정 | 3,383 | 1,476 | 508 | 694 | 705 |
| 일반관리자 과정 | 70,280 | 29,661 | 12,525 | 13,593 | 14,501 |

(3) 일반 국민에 대한 환경 교육 및 홍보

환경처는 전국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이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라는 인식, 기업인에게는 오염방지 비용은 당연히 제품 생산비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6년부터 대대적인 환경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표 4〉 사회 교육 실적

(단위 : 명)

| 연도별 교육주관단체별 | 계 | '87 | '88 | '89 |
|--------------------|-----------|---------|---------|-----------|
| 계 | 2,932,245 | 165,089 | 582,498 | 2,184,658 |
| 환경처 산하기관 및 단체 | 1,147,014 | 124,149 | 523,753 | 499,112 |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93,324 | 40,940 | 28,049 | 24,335 |
| 민간인 교육훈련기관 및 사회단체등 | 247,760 | - | 30,696 | 217,064 |
| 국방부 | 1,444,147 | - | - | 1,444,147 |

먼저 일반 공직자 및 사회인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면 〈표 4〉에서 보듯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등 각종 대중 전달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교육하는 한편, VTR 및 슬라이드, 책자 등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국민들의 환경 보전 윤리 의식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2) 환경 교육의 발전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 환경 행정의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처에서는 그동안 환경 교육의 질적, 양적 확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환경 보전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효과적인 학교 환경 교육을 위한 교육 제도 개선 또는 관계 부처의 이해 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90년대를 맞이하여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학교 환경 교육의 발전 방향

학교 환경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정규 교과과정에서 실질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되,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환경 기초 지식 배양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 기초 개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을 독립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문교부의 검인정을 받아 자유선택 과목으로 채택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학교 환경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하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교사들의 환경 교육 지도력 증진을 위하여는 교사들의 연수 과정에 '환경보전'과목을 반드시 포함토록하는 방안, 환경 교육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커리큘럼 또는 대학 교양 강좌에 '환경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교육 자료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 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 효과적인 환경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환경처에서는 학교 급별 환경 교육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전국 인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 '85년부터 환경 보전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학교 환경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장 환경 교육을 가능케한 환경 보전 학습관 설치 운영과 학교 교수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화보 및 VTR 등 각종 시청각 자료 개발 보급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환경 보전 시범 활동이 활성화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초·중학교에서의 환경 보전 시범 활동이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 윤리관 확립 및 환경 보전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이미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 경험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 자체제 실시 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는 환경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을 위한 시범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원에 있어서도 또한 시범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는 경제 기획원, 문교부, 각 시·도 교육 위원회, 교사들의 재교육 연수기관, 환경 관계 교육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환경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교육의 발전 방향

환경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환경업무를 직접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수행 태도에 따라 우리 나라 환경 정책의 결과 및 방향 등이 결정된다고 볼 때 이들에 대한 교육은 실로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환경업무는 종합 과학적인 기술 업무이므로, 현재 교육 과정을 직무 기능별로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방법도 현재의 강의 위주에서 현장 학습과 시청각 교재를 중심으로 한 실무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다.

60 第 I 主題：環境問題와 環境教育

셋째, 직무기능별 교육과정의 세분화, 교과목의 전문화 등을 통한 교육 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는 전문화된 과정별 우수한 교관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증가되는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실습 교육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 일반 사회인에 대한 환경 교육 발전 방향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는 바로 일반 사회인 즉, 성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경제 발전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이들의 환경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하여 장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접촉할 수 있는 교육의 통로 개척, 짧은 시간내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또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기회, 사회 교육 기회 등에 정기적 및 수시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환경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겠다고 본다.

4. 結論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우리의 환경 오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로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었기에 국민 모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이 그 어느 때 보다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만일 우리의 후손이 우리 세대에게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너희에게 가장 귀중한 쾌적한 환경을 물려 주고자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몇몇하게 말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이상 오염이 확산되지 않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는 정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양적 경제성장보다 전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수정이 이루어져 성장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 에너지, 농업 등의 모든 정책이 생태학적 측면에서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 정책하에 환경 교육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환경 교육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권숙표, 노재식, 이두호 외,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수원, 1987.
- (2) 김형철, 「90년대의 환경 행정 시책 방향」,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논문집』, 한국 환경교육 연구 협의회, 1990.
- (3) 신세호, 최석진, 권치순, 최돈형, 조난심,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과학 연구 협의회, 1987.
- (4) 신현덕, 「환경정책의 정책적인 측면」, 『환경법 연구』 제8권, 한국 환경 법학회, 1986.
- (5) 이명우 외 역, 데이비드 레프 저, 『현대 환경론』, 한길사, 1989.
- (6) 한겨레신문, '90. 1. 4. 25.
- (7) 환경청, 『효과적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연구』, 1982.
- (8) _____,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1983.
- (9) _____, 『'80년대의 환경시책』, 1987.
- (10) _____, 『우리 나라 환경 행정의 발자취와 전망』, 1989.